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뉴스레터

INDONESIA BUSINESS NEWSLETTER

8월
2026

- 이달의 Focus News
- 2026년 7월 인도네시아 경제 리뷰
- 월간 뉴스 동향
- 해외시장뉴스



2025년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제110호: 인도네시아 탄소 경제 가치의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다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 인도네시아어로는 탄소경제가치(NILAI EKONOMI KARBON, 이하 NEK)로 알려진 이 제도는 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논리적인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 배출되는 탄소에 화폐적 가치, 즉 가격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은 경제 주체들이 활동 과정에서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창출하게 됨.

인도네시아는 2021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 달성과 국가 개발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탄소경제가치 시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제98호(이하 기존 규정)를 제정하면서 비로소 탄소 가격제 정책 이행을 시작했음.

동 규정은 큰 틀에서 NEK를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함.

1. 배출권 거래 및 상쇄(OFFSET)를 포함하는 거래형 수단
2. 탄소세(CARBON TAX)와 성과기반지불제(RESULT-BASED PAYMENT)를 포함하는 비거래형 수단

또한 2021호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제98호는 NEK 적용 대상을 에너지, 폐기물, 산업 및 제품 사용, 농업, 임업의 5개 주요 부문으로 나누고 있음.

해당 규정은 탄소 거래 절차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총량제한거래(CAP AND TRADE) 메커니즘 도입, 상쇄 수단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감축 인증서(SERTIFIKAT PENGURANGAN EMISI GAS RUMAH KACA, 이하 SPEGRK) 사용 우선 적용, 그리고 국내외 탄소 거래소 또는 양자 간 메커니즘을 통한 거래 옵션 등이 포함됨.

〈의무 정도 및 메커니즘에 따른 인도네시아 탄소경제가치(NEK) 수단 구분〉

	Mandatory	Voluntary
Trade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Carbon Offsets
Non-Trade	Carbon Tax	Results Based Payment (RBP)

[출처: LPEM FEB UI]

이달의 Focus News

2025년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제110호(이하 신규 규정)는 인도네시아의 NEK 제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가 탄소시장 재편의 중대한 분수령이 되고 있음. 제도적 측면과 기술적 메커니즘을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NDC 목표 달성 전략에서 배출 감축 수단으로서 NEK가 갖는 근본적인 접근 방식 자체를 수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신규 규정 제55조 제1항은 "NEK 수단은 NDC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외 탄소 단위 거래는 인도네시아가 NDC 목표 전체를 달성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음. 동 정책은 훨씬 더 넓은 탄소시장의 기회를 열어주며, 기업들이 탄소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

또한 신규 규정 제69조는 다부문·범부문 기반의 탄소 거래 접근 방식을 명시적으로 도입했는데, 이는 여전히 부문별 성격이 강했던 기존 규정에 비해 시스템 통합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보여줌. 동 접근 방식은 하나의 국가 탄소 거래 체계 안에서 부문 간 및 부문 내 연계를 가능하게 하여, 보다 유연하고 조율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의 참여 공간을 확대함.

마지막으로, 신규 규정 제66조~제68조는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이하 VCM) 메커니즘을 NEK 생태계의 일부로 명확히 함으로써 탄소시장 규정을 명시적으로 강화했음. 동 규정에 따르면 환경 활동은 배출 감축 노력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탄소 크레딧이 발행되어 VCM 체계를 통해 거래될 수도 있음. 이러한 명확화는 기존 규정이 자발적 탄소 거래와 민간부문의 폭넓은 참여에 충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던 한계를 해소한 것임.

이 세 가지 사항 외에도, 2025년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제110호는 국제 기준에 더욱 부합하는 탄소 거래 메커니즘을 도입했음. 특히 파리협정 제6조(ARTICLE 6) 규정, 그중에서도 국가 간 거래를 위한 승인 절차와 상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이하 CA) 메커니즘을 채택했으며, 이는 신규 규정 제67조~제68조에 명시되어 있음.

해외 거래의 경우 CA 관련 메커니즘의 유무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임. CA 처리가 적용되지 않은 상쇄분(OFFSET)은 인도네시아의 NDC 목표 달성 기여분으로 계속 산정됨. 반대로 CA가 적용된 상쇄분은 이미 타국으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인도네시아 NDC의 일부로 산정될 수 없음.

신규 규정은 투명성을 높이고 이중계산(DOUBLE COUNTING)을 방지함. 궁극적으로 이러한 개선은 인도네시아가 국제 탄소 거래 체계에 참여하는 데 있어 더욱 강력한 입지를 갖게 함.

NDC에 대한 접근 방식, 부문 간 통합, VCM과 국제 거래를 포함한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명확화 등 수단 및 메커니즘 관련 강화 외에도, 신규 규정은 특히 탄소 등록시스템 강화, NEK 이행에서 지방정부 역할의 명확화, 그리고 NEK 운영위원회 위원장 변경을 통해 탄소시장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음.

첫째, 시장 인프라 측면에서 신규 규정은 국가기후변화규제등록시스템(SISTEM REGISTRASI NASIONAL PENGENDALIAN PERUBAHAN IKLIM, 이하 SRN)을 보완하는 새로운 구성요소로서 탄소단위등록시스템(SISTEM REGISTRASI UNIT KARBON, 이하 SRUK)을 도입했음. 기존 SRN이 완화 조치 기록 및 국가 배출량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주요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면, SRUK는 탄소시장의 거래적 측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계되었음.

SRUK의 기능은 탄소 단위 소유권 기록, 일련번호 부여(SERIALISASI) 절차, 단위 이동 추적, 그리고 탄소 크레딧의 수출입 관리까지 포괄함. SRN과 SRUK 간의 통합은 투명성과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을 높이고, 완화 조치와 탄소 단위 이동 간의 기록 일관성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탄소 회계 시스템을 공고히 함. 이는 특히 국제 탄소 거래 맥락에서 CA 이행을 뒷받침하고 이중계산 발생을 방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함.

나아가 신규 규정에서 인도네시아 지방정부 역할의 강화는 특히 현장 수준의 이행 및 감독 단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배출원과 탄소 흡수 잠재력의 특성상 상당 부분이 지방 행정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는 지역 온실가스 배출 기준선(BASELINE) 수립, 탄소 프로젝트 지원, 배출 활동 데이터의 제공 및 검증, 그리고 지역중기개발계획(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DAERAH, RPJMD)이나 공간계획(RENCANA TATA RUANG WILAYAH, RTRW)과 같은 지역 개발계획 문서에 배출 감축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것을 포함해 지역 기후변화 완화 활동을 이행하는 데 있어 전략적 위치에 있음.

마지막으로, 해당 규정은 국가 조정 체계에도 변화를 가져왔음. 이전에는 NEK 시행 조정 기능이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산하에 있었으나, 이번 새로운 규정에서는 동 기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도네시아 식량조정부로 이관되었으며, 다른 조정부처들의 지원을 받음.

글로벌 맥락에서 볼 때, SRN 강화, SRUK 구축, 그리고 상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규정 준비는 인도네시아가 국제 탄소 거래에서 신뢰도를 높이고 파리협정 제6 조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잠재력이 있음. 다만 SRN과 SRUK를 구축·운영·관리하기 위한 인프라 및 인적자원의 준비 수준은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음.

이달의 Focus News

2025년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제110호가 거버넌스, 제도, 탄소시장 통합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이 국가 탄소시장의 근본적인 과제, 즉 인도네시아 시장의 낮은 탄소 가격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님.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TCO₂E당 2~5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비교적 낮은 탄소 단위 가격은 탈탄소화를 촉진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여전히 제한적임을 보여줌. 이러한 상황은 낮은 수요, 아직 엄격하지 않은 배출 한도,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행 의무 부족 등에 기인함.

[출처: 인도네시아대학교 경제경영대학 경제사회연구소(LPEM FEB UI)]

2026년 7월 인도네시아 경제 리뷰

인도네시아, 6년 만에 첫 무역적자 기록

인도네시아의 무역수지가 유가 급등에 따른 수입 증가와 글로벌 수요 부진에 따른 수출 둔화가 맞물리면서 6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됐음. 아뎡 하르토노(ATENG HARTONO)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관계자는 5월 무역적자 16억 1천만 달러는 주로 석유·가스 부문의 대규모 적자에 기인한다고 밝혔음.

인도네시아의 월간 수입이 수출을 초과한 것은 375백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2020년 4월 이후 처음임. 이후 인도네시아 무역수지는 7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왔음. 아뎡은 이번 5월 적자가 지난 2020년 4월 당시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석유·가스 부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0년 4월과 달리 이번에는 비석유·가스 품목 무역은 여전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유·가스 수입액은 지난해 5월 26억 4천만 달러에서 2026년 같은 달 45억 1천만 달러로 71% 급증했는데, 이는 단순히 가격 상승 때문만이 아니라 수입 물량 자체도 전년 동월 대비 (YOY) 7.28% 증가한 데 따른 것임. 반면 석유·가스 제품 수출액은 5월 기준 7억 6천만 달러에 그쳐, 2025년 같은 달 기록한 11억 1천만 달러 대비 32% 감소했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은 수입품을 용도에 따라 소비재, 자본재, 원자재 및 보조재 등 세 그룹으로 분류했음. 이 중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2%, 12.7% 증가했음.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전체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 및 보조재 수입은 5월 전년 동월 대비 25% 급증했으며, 이는 광물성 연료와 전기·기계 기기 및 장비 수입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음. 이처럼 5월 전체 수입이 급증한 반면, 수출은 반대로 전년 동월 대비 5.73% 감소했음.

비교 대상 시점인 2025년 5월 당시 수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것은, 당시 트레이더들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고율 관세 부과를 앞두고 대미 선적 물량을 미리 늘렸기 때문임.

인도네시아의 3대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석탄만이 물량 기준으로는 13.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4.11% 증가했음. 나머지 두 품목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철강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4.7% 감소했고, 팜유(CPO) 및 그 파생제품 선적량은 26% 급감했음.

2026년 7월 인도네시아 경제 리뷰

조슈아 파르데데(JOSUA PARDEDE) 퍼르마타은행(PERMATA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제 가격 상승과 무역 갈등, 전반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5월 인도네시아 수출품에 대한 수요를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러한 단기적 압박 요인이 상품 및 중간재에 크게 의존하는 "인도네시아 수출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인도네시아 수출 품목에는 여전히 기술, 첨단 전자제품,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이 충분히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슈아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수입 급증의 결정적 요인으로 주로 에너지 및 물류 가격 상승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내 비용 인플레이션", 생산 투입재에 대한 강한 국내 수요, 그리고 수입 상대국들의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최근 루피아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더욱 가중된 수입품 가격 상승은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의 투입비용 인플레이션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6월에는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더욱 악화됐음.

조슈아 이코노미스트는 1개월간의 무역적자는 유가가 다시 하락하고 수출이 회복된다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적자가 몇 달간 지속된다면 우려할 만한 사안이 된다고 말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경상수지 적자를 악화시키고 루피아화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연료 소비를 줄이는 한편 국내 에너지 생산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석유·가스 부문의 적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언급함. 아울러 조슈아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성 수입을 줄이고, 단순한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다운스트림 산업 발전을 통해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음.

샤프루딘 카리미(SYAFRUDDIN KARIMI) 안달라스대학교(ANDALAS UNIVERSITY)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몇 달간 이번 무역적자의 부정적 여파가 루피아화 압박, 수입물가발 인플레이션, 높은 채권금리, 그리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 축소 등의 형태로 현실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The Jakarta Post, 07.01.]

2026년 7월 인도네시아 경제 리뷰

인니 6월 인플레이 3.34%,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5.75%로 인상

2026년 6월 인플레이션 동향은 전체 지출 그룹 지수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었음을 보여 줌. 인플레이션율은 전년 동월 대비(YOY) 3.34%를 기록하며, 2026년 5월의 3.08%(YOY)에서 상승했음. 이는 여전히 물가안정목표 범위인 $2.5\% \pm 1\%$ 이내에 머물러 있으나, 목표 상단에 점차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 안정 관리의 여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음을 시사함. 요인별로 살펴보면, 이번 달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당 부분은 상대가격 변동, 특히 정부관리물가 구성 요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음.

월간 기준으로 2026년 6월 인플레이션은 전월대비(MTM) 0.28%에서 0.44%로 상승했으며, 이러한 물가 압력의 절반 이상이 교통 부문이라는 단일 지출 그룹에서 비롯되었음. 휘발유 가격, 항공 운임, 유탄유가 이번 상승을 견인한 주요 품목이었음. 이는 식품 및 생필품 가격 변동이 주된 압력 요인이었던 전월의 인플레이션 양상과는 다른 패턴임.

정부관리물가 구성 요소는 6월 인플레이션 가속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 동 구성 요소는 5월 전월대비(MTM) 0.52%에서 6월 1.41%로 상승했으며, 전체 월간 인플레이션의 0.27%포인트를 기여했음.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YOY) 3.42%를 기록하며 0.66%포인트를 기여했는데, 이는 전월의 2.07%(YOY)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임. 이러한 상승은 주로 휘발유 가격 및 항공 운임 조정과 관련이 있음. 이는 에너지 구성 요소가 전월대비(MTM) 1.92%, 전년 동월 대비(YOY) 2.87% 상승한 것과도 궤를 같이함.

2026년 6월 한 달간 인도네시아 국영 오일 및 석유 기업 PERTAMINA는 비보조금 석유제품(BBM) 가격을 조정했는데, 특히 6월 10일부로 PERTAMAX RON 92는 리터당 12,300루피아에서 16,250루피아로, PERTAMAX GREEN RON 95는 리터당 12,900루피아에서 17,000루피아로 인상했음. 국민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보조금 연료는 가격 조정이 없었으나, 비보조금 연료 가격 인상은 중산층의 이동 비용, 일부 사업자의 운영 비용, 그리고 에너지 가격 향방에 대한 대중의 기대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의미함. 이러한 영향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압박 및 루피아화 약세와 동시에 발생하면서 6월 인플레이션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코어인플레이션 구성 요소는 2026년 6월 기준 연간(YOY) 2.76%, 월간(MTM) 0.23%를 기록했음. 연간 수치는 5월의 2.59%(YOY)에서 상승했으며, 월간 수치 역시 0.07%(MTM)에 그쳤던 2025년 6월보다 높은 수준임. 코어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전체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수준이며 과도한 국내 수요 압력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2026년 4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상당한 상승세는 비식품 서비스 및 내구재 가격 일부가 투입비용 부담과 소비자 물가 기대심리에 반응하여 조정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함.

2026년 7월 인도네시아 경제 리뷰

한편, 변동가격 구성 요소는 2026년 6월 기준 연간(YOY) 5.58%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음. 이 구성 요소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5월의 6.24%(YOY)보다 하락했으나, 여전히 전체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준으로, 식품가격 구성 요소가 여전히 연간 인플레이션의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줌. 월간 기준으로는 이 구성 요소가 전월대비(MTM) 0.14% 상승에 그쳤으며, 전체 월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여도는 0.02%포인트였음.

이러한 흐름은 식품가격 압력이 완전히 완화되지는 않았으나, 6월에 새롭게 추가된 압력은 에너지 및 교통 부문에서 비롯된 압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줌. 식품 그룹 내에서는 연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주로 생선(신선어류), 쌀, 식용유, 홍고추에서 비롯되었음.

한편, 월간 기준으로는 일부 생산 중심지의 수확기 종료에 따른 공급 제약의 영향을 받은 살롱이 식품 인플레이션 압력의 가장 큰 요인이었음. 동시에 육계육, 계란, 청경채, 오이 가격 하락이 월간 식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음.

2026년 6월 변동가격 구성 요소의 월간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비자 단계에서의 공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도 있음. 이러한 정책에는 저가식품운동(GERAKAN PANGAN MURAH, GPM), 전통시장 대상 식량공급물가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한 쌀 유통 가속화, 그리고 MINYAKITA라는 보조금 지원 식용유 유통 정책 등이 포함됨.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6년 6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총 50BP 인상하며 5.75%로 끌어올렸음. 이번 인상은 현재의 물가 압력에 대응하는 차원뿐 아니라, 루피아화 안정을 유지하고 2026년 및 2027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목표 범위 내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함. 근원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볼 때, BI의 이번 조치는 정부관리물가 및 변동가격 구성 요소에서 비롯된 물가 압력이 보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신호로 해석됨.

[LPEM FEB UI, 07.02.]

호주 기업, 인도네시아에 3억 5천만 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호주의 배터리 소재 가공 기술 기업인 PURE BATTERY TECHNOLOGIES(PBT)가 인도네시아에 전구체 양극재(PRECURSOR CATHODE ACTIVE MATERIAL, PCAM)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예상 투자 규모는 3억 5천만 달러임.

토도투아 파사리부(TODOTUA PASARIBU) 인도네시아 투자다운스트리밍 부문 차관과 스티븐 월모트(STEPHEN WILMOT) PBT 회장은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투자진흥센터(IIPC)에서 이번 투자 계획에 대해 논의했음. 파사리부 차관은 동 호주 기업이 국내 고압산침출(HPAL) 시설에서 생산되는 혼합수산화침전물(MHP)을 활용해 PCAM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고 밝혔음.

차관은 인도네시아는 이미 HPAL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만간 배터리 셀 생산도 시작할 예정임. 부족한 공급망은 PCAM과 캐소드(양극재) 부문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PURE BATTERY TECHNOLOGIES와 같은 기업의 투자가 완전히 통합된 배터리 생태계를 완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언급함.

차관은 이번 투자가 니켈 채굴, MHP 가공, PCAM 및 캐소드 생산, 그리고 배터리 셀 제조에 이르는 국가 배터리 밸류체인 핵심 공백을 메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움직임은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전기차(EV) 생태계 허브로서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인도네시아 정부는 PCAM 투자를 배터리 공급망의 미드스트림 공백을 메우고, 자국의 니켈 매장량에 대한 국내 부가가치를 최적화하는 데 있어 매우 전략적인 것으로 보고 있음. 현재 배터리 전구체 제조업은 니켈 산업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문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아직 발전이 미흡한 상태임.

레이디 수리아닝랏(LEIDY SURIANINGRAT) 인도네시아 투자유치센터(INDONESIA INVESTMENT PROMOTION CENTER, 이하 IIPC) 시드니 소장은 호주 기업과 인도네시아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을 지원함으로써 이번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레이디 소장은 IIPC 시드니는 PURE BATTERY TECHNOLOGIES의 인도네시아 투자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부 기관 및 전략적 파트너와의 연결을 지원하며,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음.

이번 투자 계획 논의와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PBT의 인도네시아 내 법인 설립, 생산 공장 후보지, 자금 조달 방안, 그리고 니켈 채굴 및 가공 부문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 기회에 대해서도 다뤄졌음.

[Antara News, 07.02.]

인도네시아 탄소거래 가치, 5조 루피아 규모 달성 전망

라자 줄리 안토니(RAJA JULI ANTONI)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탄소거래가 적절하고 책임성 있게, 투명하게,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관리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약 5조 루피아(약 2억 7,77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산림부 장관은 이번 탄소거래 제도가 국민 복지를 개발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림부의 탄소 프로젝트 승인 이양식 및 인도네시아 산림탄소센터(FORESTRY CARBON CENTRE) 출범식에서 이번 초기 단계에는 이미 4건의 탄소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이 중 3건은 산림이용사업허가(PERIZINAN BERUSAHA PEMANFAATAN HUTAN, PBPH)를, 1건은 사회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들 프로젝트를 통해 약 3,000만 톤의 이산화탄소 환산량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 22만 5천 헥타르에 달하는 3개 프로젝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조세국가수입(NON-TAX STATE REVENUE) 잠재 규모가 약 5,000억 루피아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 4개 지역에서 나온 수치일 뿐이며, 인도네시아는 탄소거래를 위한 잠재 면적으로 약 1,270만 헥타르를 보유하고 있음. 산림부 장관은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인도네시아는 탄소 경제를 발전시킬 막대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탄소 경제 잠재력은 투명하고 책임성 있으며 부패와 조작이 없는 건전한 산림 거버넌스를 통해서만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러한 거버넌스 하에서 인도네시아의 산림은 더욱 푸르러지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녹색경제는 국가 경제성장률 8%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새로운 성장 동력 중 하나로 기대된다고 언급함.

장관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 외에도, 탄소거래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탄소시장 및 다양한 탄소거래 제도 개발, 그리고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지시사항인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밝혔다.

[Antara News, 07.06.]

인도네시아, 20억 달러 규모 수소 프로젝트 93건 추진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현재 총 320조 루피아(약 20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가치를 지닌 93건의 수소 생태계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에니야 리스티아니 데위(ENIYA LISTIANI DEWI)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보전 총국장은 7월 2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6 글로벌 수소 생태계 서밋 및 전시회(GLOBAL HYDROGEN ECOSYSTEM SUMMIT & EXHIBITION 2026)' 개막식에서, 정부가 이들 고부가가치 프로젝트의 신속한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니야 총국장에 따르면,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디젤 발전을 보다 친환경적인 대체 에너지원으로 체계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탈디젤화(DEDIESELIZATION)'를 가속화하라는 바흐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의 지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음.

우선 추진 프로젝트 중에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동누사통가라(EAST NUSA TENGGARA) 숨바(SUMBA)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포함됨. 이와 함께 국영전력공사 PLN과 협력하여 령잇 섬(RENGIT ISLAND)에서 진행되는 실증(PROOF-OF-CONCEPT)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과 수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결합해 외딴 지역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임.

지열 부문에서는 국영 에너지기업 PT PERTAMINA가 LAMPUNG의 울루블루(ULUBELU) 지열전(FIELD)에서 지열 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을 개시했음. 에니야 총국장은 국내 수소 생태계 확대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에너지안보지수가 기존 10점 만점에 7점에서 8점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서밋과 함께 정부는 국영 대중교통 운영사인 PERUM DAMRI와 협력하여 '수소-디젤 이중연료(HYDROGEN-DIESEL DUAL FUEL, H2 DDF) 버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음. 동 프로그램은 기존 디젤 엔진을 개조해 디젤과 수소를 혼합한 연료로 운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의 저탄소 대중교통 도입을 향한 첫걸음임.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수입 디젤 소비를 줄이고 배기가스 배출을 낮추며, 저탄소 교통 생태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향후 상용차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Antara News, 07.22.]

인도네시아 다난타라 국부펀드, 최소 5억 달러 규모 달러화 채권 발행 계획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DANANTARA)의 투자 부문이 최소 5억 달러 규모의 장기 만기 미 달러화 표시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음. 소식통 중 한 명은 투자 기구인 DANANTARA INVESTMENT MANAGEMENT가 20년물과 30년물 중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두 가지를 동시에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채권 발행이 성사되면 다난타라는 역외 자금조달 만기 구조를 더욱 장기화하게 되며, 이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야심찬 경제 어젠다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다난타라의 행보와 맞물림. 다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다난타라의 거버넌스, 독립성, 실행 역량과 관련한 리스크를 저울질하고 있음. 이번 채권 발행 계획은 지난 6월 15억 달러 규모의 첫 달러화 채권 발행 당시 강한 수요를 이끌어낸 데 이어, 훨씬 더 장기 만기 조건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난타라에 자금을 공급할 의향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루피아화는 여전히 사상 최저치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5월 이후 통화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총 100BP 인상한 데 이어 수요일 금리를 동결했음. 인도네시아 증시 역시 최근 반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시아 증시 중 최하위권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음. 한 소식통은 이번 채권 발행 계획의 전략적 취지는 장기 해외 지분 투자와 장기 달러화 자금조달을 서로 일치시켜 통화 불일치(CURRENCY MISMATCH) 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다며, 이는 루피아화에 가해지는 추가적인 수요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난타라가 어떠한 "유동성 압박"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 발행 시점은 유연하게 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난타라 측은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음. 로이터에 따르면, 다난타라는 이번 채권 발행의 공동 대표주관사 겸 북러너(BOOKRUNNER)로 씨티그룹(CITIGROUP), HSBC, JP모건(JPMORGAN), 미쓰비시UFJ은행(MUFG), 스탠다드차타드은행(STANDARD CHARTERED BANK)을 선정했음.

해당 채권이 발행될 경우, 다난타라의 50억 달러 규모 글로벌 중기채(MTN) 프로그램에서 조달될 예정임. 다난타라는 4월 30일 기준 123조 루피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5억 달러 규모의 첫 달러화 채권, 100억 달러 규모의 다통화 리볼빙 신용공여 한도, 국영기업(SOE) 배당금 70조 루피아, 그리고 애국채(PATRIOT BOND) 발행을 통해 조달된 68조 4천억 루피아 등의 자금원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음.

월간 뉴스 동향

해당 자료는 또한 다난타라가 2030년 전략적 자산배분 목표를 향해 단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그 목표 비중은 전략적 투자 10~20%, 개인자산(PRIVATE ASSETS) 20~45%, 공공자산(PUBLIC ASSETS) 20~40%, 유연한 자산배분(FLEXIBLE ALLOCATION) 풀 15~25%, 그리고 유동성 준비금 5%로 구성됨.

[The Economic Times, 07.23.]

인도네시아 식약청 가공식품·음료 영양등급 표기제(Nutri-Level) 의무화 추진

도입 배경: 비전염성 질환 증가와 정부의 정책 대응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에서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NCD)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타루나 이크라르(TARUNA IKRAR) BPOM 청장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전체 사망 원인의 73%가 비전염성 질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글로벌 평균인 70%를 상회하는 수치임. OECD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50년까지 인도네시아의 비전염성 질환 환자 수는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불건강한 식습관은 흡연·대기오염과 함께 비전염성 질환 발생 및 조기 사망을 유발하는 3대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힘. 특히 당뇨병은 인도네시아 전체 조기 사망 원인 질병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전염성 질환 전체로는 연간 GDP를 최대 4.8%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인도네시아 국가건강보험(BPJS KESEHATAN)에서 비용 부담이 가장 큰 4대 질환이 모두 당·나트륨(소금)·지방 과다 섭취와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신부전 치료 지출만 해도 2019년 2조 3,200억 루피아(약 2조 원)에서 2025년 13조 3,800억 루피아(약 11조 5,000억 원)로 400% 이상 증가했음.

이에 대응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포장 식품의 영양 표기를 단순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소비자의 건강한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초기에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BPOM)이 포장 음료에 대한 자발적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라벨을 도입하는 데 그쳤으나, 2026년 들어 BPOM과 보건부가 각각 관할 영역에서 뉴트리-레벨 도입 근거를 마련하며 의무화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음. BPOM 청장은 공중보건의 이익과 기업의 운영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약 2년이 소요됐다고 밝혔음.

영양등급 표기제(NUTRI-LEVEL) 규정 도입 배경

영양등급 표기제(NUTRI-LEVEL) 도입은 2026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음. 2026년 4월 6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영양등급 표기제(NUTRI-LEVEL) 정책을 공식 승인했으며 관련 규정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음. 이후 인도네시아 보건부(KEMENTERIAN KESEHATAN, KEMENKES)는 4월 14일 보건부 장관 결정 제 HK.01.07/MENKES/301/2026호를 발효시키며 대형 식음료 사업체를 대상으로 즉석 섭취 식음료에 영양등급 표기제(NUTRI-LEVEL) 표기를 적용하는 체계를 먼저 마련했음. 다만 보건부 규정은 BPOM 규정과 적용 대상, 의무화 여부, 세부 이행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어 두 규정을 별개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보건부는 현장에서 조리·제공되는 즉석 식음료를 주로 관할하는 반면, BPOM은 소매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포장·가공식품을 관할함.

이후 2026년 6월 9일 BPOM은 '가공식품 라벨의 영양성분 정보(INFORMASI NILAI GIZI PADA LABEL PANGAN OLAHAN)에 관한 BPOM 규정 제10호/2026'을 공식 제정했으며, 동 규정은 2026년 6월 17일부터 발효됨. BPOM 규정 제10호/2026은 기존 BPOM 규정 제26호/2021을 폐지하고 대체하는 규정으로, 이번 규정 제정으로 BPOM 국장 규정 제9호/2016, BPOM 규정 제16호/2020, BPOM 규정 제26호/2021 등 관련 선행 규정 3개가 일괄 폐지됨.

<BPOM 규정 제10호/2026 도입에 따라 폐지된 기존 규정>

규정명	발효일	효력 상실일	현황
BPOM 국장 규정 제9호 2016 : 영양 표기 기준	2016년 5월 24일	2026년 6월 17일	폐지
BPOM 규정 제16호/2020 : 소규모 및 소기업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정보 표기에 관한 규정	2020년 7월 17일	2026년 6월 17일	폐지
BPOM 규정 제26호/2021 : 영양 정보에 관한 규정	2021년 11월 2일	2026년 6월 17일	폐지

[자료: 각 규정,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BPOM 규정 제10호/2026 주요 사항

BPOM 규정 제10호/2026는 가공식품 라벨의 영양성분 정보 표기 전반을 새롭게 정비했다. 기존 BPOM 규정 제26호/2021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음.

변경 사항	BPOM 규정 제26호/2021	BPOM 규정 제10호/2026
영양성분정보 표기 대상 제외 품목 추가	제3조 제1항 분쇄 커피 인스턴트 커피 티백 차 디카페인 커피 커피 원두 분말차, 잎차(루스리프), 티백차 및 허브차(허브 인퓨전 포함) 먹는샘물(병입 음용수) 탄산음료 허브 향신료 조미료 양념류(조미소스 등) 식용 식초 효모 식품 첨가물	제3조 제1항 분쇄 커피 인스턴트 커피 디카페인 커피 커피 원두 건조차 먹는샘물(병입 음용수) 탄산음료 허브 향신료 오향분(오향가루) 흑마늘 식용 식초 효모 식품 첨가물

중소·영세기업(MSMEs)의 영양정보(ING) 표기 기준 신설	별도 영양정보 표기 의무 없음	제7조 중소·영세기업이 영양정보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영양성분 분석 결과 활용 또는 BPOM 청장이 정한 가공식품 영양성분 기준값을 활용 위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된 식품 원재료를 기반으로 산출한 영양성분 계산값을 사용할 수 있다 원재료 기반 영양성분 산출 방법은 BPOM 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영세기업이 생산하는 특수영양식품(PKGG)은 반드시 공인시험기관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한다
표기해야하는 영양성분 항목	제5조 제3항 총열량 총지방 포화지방 단백질 총 탄수화물 당류 나트륨(소금)	제12조 제1항 총열량 총지방 포화 지방 단백질 총 탄수화물 총 당류 나트륨(소금)
영양등급 (Nutri-Level) 표	규정 없음	제27조 제1항 영양등급(Nutri-Level) 표기 의무 신설
영양성분정보 표기 위치	제16조 라벨에서 가장 잘 보이고 읽기 쉬운 부분	제27조 제1항 포장재 전면(Front of Pack)에 영양정보를 표기

[자료: 각 규정,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또한 동 BPOM 개정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영양등급(NUTRI-LEVEL) 표기를 의무화 하도록 했음. 다만, 공포일로부터 24개월의 이행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BPOM은 유예 기간 중 조기 도입 기업에 제품 허가 절차 간소화 등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음.

영양등급 표기제(NUTRI-LEVEL) 개요

영양등급(NUTRI-LEVEL)은 소비자가 가공식품을 비교하고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BPOM 청장은 이 등급 표기제가 특정 가공식품의 섭취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자발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정보 도구임을 강조했음.

적용 대상은 즉석 음료(READY-TO-DRINK, RTD), 분말 음료, 액상 및 고형 농축액이며, 분유·성장기용 분유·특수 의료용 가공식품(PKMK)은 제외됨. 등급은 당·소금(나트륨)·총 지방 함량을 기준으로 A~D 4단계로 구분하며, 세 항목 중 가장 낮은 등급이 최종 등급으로 결정됨.

<영양등급(Nutri-Level) 표기에 관한 일반 규정>

항목	규정
가공식품 분류 기준	당류, 나트륨(소금), 총지방 함량을 기준으로 분류
시행 일정	규정 공포일부터 2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의무 시행
표기 위치	영양정보표와 함께 포장재 전면에 명확하게 표기
적용 대상 제품	즉석음용음료(RTD), 분말음료, 액상 및 고형 농축음료
적용 제외 제품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성장기용 영양식 및 특수의료용도식품(FSMP)

[자료: BPOM 규정 제10호/2026,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즉석 섭취용 제품 100ml당 영양소별 등급 기준>

영양소	등급별 기준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설탕(g)	≤0,5	>0,5 - ≤6,0	>6,0 - ≤12,5	>12,5
소금·나트륨(mg)	≤5,0	>5,0 - ≤120,0	>120,0 - ≤500,0	>500,0
총 지방 (g)	≤0,5	>0,5 - ≤3,0	>3,0 - ≤17,0	>17,0

[자료: BPOM 규정 제10호/2026,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영양등급(NUTRI-LEVEL) 표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A등급은 직접 첨가 및 이월(CARRY-OVER)을 통한 감미료 원료 사용이 금지되며, B등급은 천연 감미료 원료만 사용 가능함. C·D등급은 천연 및 인공 감미료 모두 사용할 수 있음. 당류 산정 시에는 락토스를 제외한 모든 단당류·이당류가 포함됨. 다만 비타민·미네랄만 첨가된 일반 액상 우유와 무가당 분유의 경우 총 지방 함량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영양등급(NUTRI-LEVEL) 표기 형식

영양등급(NUTRI-LEVEL) 표기는 포장 전면에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BPOM 규정 제10호/2026 법령에 표기가 규정되어 있음. 서식은 전체서식 또는 단순 서식 두가지 서식으로 구분되며 색상 기준도 규정으로 지정되어 있음. A등급은 짙은 녹색(CMYK 100C 25M 100Y 0K), B등급은 연두색(CMYK 55C 0M 100Y 0K), C등급은 노란색(CMYK 0C 30M 90Y 0K), D등급은 빨간색(CMYK 20C 100M 100Y 10K)으로 표기해야 함. 글꼴은 'NUTRI-LEVEL' 표기에는 ARIAL BLACK, 영양성분 수치 표기에는 ARIAL BOLD를 사용해야 하며, 뉴트리-레벨 로고가 상표명이나 라벨의 중요 정보를 가리지 않도록 배치해야 함. 최소 크기 기준으로 영양등급(NUTRI-LEVEL) 표기의 긴 변은 최소 20MM, 짧은 변은 최소 8.5MM, 'NUTRI-LEVEL' 텍스트 높이는 최소 1.5MM를 유지해야 함.

A·B등급 제품은 등급 로고만 표기해도 되지만, C·D등급 제품은 100ML당 당류·소금·총 지방 함량을 반드시 함께 표기해야 함.

<영양등급(Nutri-Level)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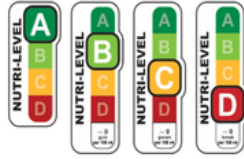
[자료: BPOM 규정 제10호/2026,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표기 방법>

항목	규정	설명/예시
표기해야 하는 문자	A, B, C 및 D - 전체를 기재	
가공식품 등급 결정 방법	당류, 나트륨 및 총지방 함량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며, 각 영양성분의 등급이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영양등급(Nutri-Level)으로 적용한다.	
등급 표기 방법	가공식품에 해당하는 영양등급(Nutri-Level)의 알파벳(문자) 1개를 강조하여 표기한다.	 
영양성분정보 표기	A등급 및 B등급 제품은 해당 등급의 알파벳을 강조한 영양등급(Nutri-Level) 로고만 표기하면 되며, 당류·나트륨·총지방 함량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C등급 및 D등급 제품은 즉석섭취 제품 100mL당 당류, 나트륨 및/또는 총지방 함량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자료: BPOM 규정 제10호/2026,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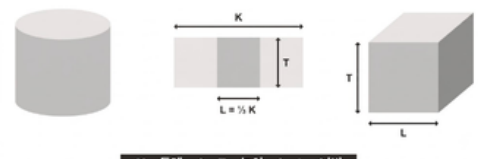
<라벨 표면 면적 별 적용 서식>

서식 형태	라벨 표기 면적 기준	내용	예시
전체 형식 (Full Format)	30cm ² 초과 가공식품	포장 형태에 맞춰 가로 형 또는 세로형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즉석섭취 제품 100mL당 당류, 나트륨 및/또는 총지방 함량을 함께 표기한다. 이때 표기되는 영양등급(Nutri-Level)은 당류·나트륨·총지방 중 가장 낮은(가장 불리한)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가로형:  세로: 
단순 형식 (Simple Format)	30cm ² 이하 가공식품	가공식품의 영양등급(Nutri-Level) 등급에 따라 A, B, C 또는 D 중 해당 알파벳 즉석섭취 제품 100mL당 당류, 나트륨 및/또는 총지방 함량을 함께 표기 이때 표기되는 영양등급(Nutri-Level)은 당류·나트륨·총지방 중 가장 낮은(가장 불리한) 등급을 기준으로 함	

[자료: BPOM 규정 제10호/2026,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기타 서식>

항목	서식
글꼴	‘NUTRI-LEVEL’ 표기용 Arial Black 영양 성분 표기용 Arial Bold
Nutri-Level 색상	A 레벨: 짙은 녹색 – CMYK 100C 25M 100Y 0K 레벨 B 연두색 – CMYK 55C 0M 100Y 0K 노란색 레벨 C – CMYK 0C 30M 90Y 0K 빨간색 레벨 D – CMYK 20C 100M 100Y 10K 검정: CMYK 0C 0M 0Y 100K 흰색: CMYK 0C 0M 0Y 0K.
Nutri-Level 표기 시 주의 사항	1. 브랜드명과 겹치거나 라벨의 중요 정보를 가려서는 안 된다. 2. Nutri-Level 표기 시 아래 행위는 금지한다 : 색상을 변경하는 행위 형식 및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표기 위치(회전 방향)를 변경하는 행위 글꼴(Font)을 변경하는 행위

크기 및 Nutri-Level 배치	a. Nutri-Level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소 표기 크기를 충족해야 한다. $\text{최소 한 변의 길이} = \frac{\text{포장재 전면의 너비} + \text{포장재 전면의 높이}}{7}$ b. 원통형 포장의 경우, 포장재 전면의 너비는 포장재의 둘레를 3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한다.  K = 둘레 T = 높이 L = 너비 c. Nutri-Level은 긴 변의 길이가 최소 20mm, 짧은 변의 길이가 최소 8.5mm 이상이어야 하며, 'NUTRI LEVEL' 문구의 글자 높이는 최소 1.5mm 이상이어야 한다.
---------------------	---

[자료: BPOM 규정 제10호/2026,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현지 반응

BPOM의 새로운 영양정보 표시 규정에 대해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공중보건보다 산업계의 이해 관계를 우선한 조치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인도네시아 시민 포럼(FAKTA)은 인도네시아 아동보호위원회(KPAI)와 공동으로, BPOM 규정 제10호/2026에서 도입한 영양등급(NUTRI-LEVEL) (A·B·C·D) 표시 체계가 법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인도네시아 보건법과 정부규정 제28호/2024가 목표로 하는 비전염성 질환 예방 정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 소비자는 '당분 함량 높음', '염분 함량 높음'과 같은 직접적인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것이 알파벳 등급보다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 아울러 우유와 생수 등 일부 제품을 NUTRI-LEVEL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 「소비자보호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음.

KPAI의 자슬라 푸트라(JASRA PUTRA) 위원 역시 A·B·C·D 등급 중심의 영양등급(NUTRI-LEVEL) 표시 방식은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음. 그는 BPOM 자체 연구와 공동 연구 결과에서도 '당분 함량 높음', '염분 함량 높음'과 같은 직접적인 경고 문구가 어린이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KPAI는 「아동보호법」에 규정된 아동의 명확한 정보 접근 권리를 근거로, 인간개발문화조정부(KEMENKO PMK)와 협력해 BPOM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시사점

이번 규정은 즉석 음료(RTD), 우유, 에너지 드링크, 분말 음료 믹스, 액상·고형 농축액 등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생산·판매하는 한국 식음료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24개월 유예 기간이 주어져 있어 당장 의무 대응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사전 준비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함.

우선 자사 제품의 당·나트륨·총 지방 함량을 기준으로 예상 등급을 미리 산정해 볼 필요가 있음. C·D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은 소비자 선택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제품 성분 조정이나 포트폴리오 재편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라벨 디자인도 규정에서 지정한 색상·글꼴·크기·배치 기준에 맞게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함. BPOM 제품 허가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유예 기간 만료 직전에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일시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대응 일정을 수립해두는 것이 필요함.

조기 도입을 선택할 경우 BPOM의 행정적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선점할 수 있음. A·B등급을 받는 제품은 오히려 시장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마케팅 전략에 적극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함. 아울러 현재 BPOM 규정 제10호/2026은 음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향후 고형 식품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글로벌 통상 이슈 내 손으로 빠른 배송

카카오톡에서 **"KOTRA 세계이슈톡톡"** 채널을 추가하고
세계 주요 통상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세요!



미국 관세조치와 중동 이슈 등
최신 통상이슈 팩트 중심 수시 전파

- 워싱턴·브뤼셀·베이징·도쿄 데스크 정기 뉴스레터
및 이슈 보고서
- 세계 경제 및 통상 동향을 전하는 주간 뉴스레터
- 지역·산업 트렌드 심층·특화 보고서



KOTRA 세계이슈톡톡 +

http://pf.kakao.com/_xbQCRn/friend

KOTRA 지역통상조사실